



# GOOD BYE, Dengue Fever!



Edit by . **Amelia** | **Dencio** | **Rosita** | **Lucas**

Copyright © RaBa. All rights reserved

# Index

- 1. 활동지 \_Dumpsite
- 2. 활동지 \_Pugaro
- 3. End Poverty
- 4. 우리의 10월
- 5. 피드백
- 6. 개인 에세이

**01**

# 활동지\_ Dumpsite



## 활동지\_Dumpsite



아이들은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곧 잘 그렸다. 밝은 분위기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살고 싶은 집의 모습들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종이 접기와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종이 비행기, 왕관 등 간단한 종이접기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에 참여했다.

## 활동지\_Dumpsite

적응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처치료,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으로 10월 덤프 사이트 활동의 시동을 걸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밝고 활발하고 어른들은 언제나 우리를 웃으면서 반겨 주셨다. 처음 비공식 활동으로 롤리가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종이와 색연필을 주었다. 아이들의 그림 대부분은 좋은 집에 관한 것들이 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 활동지\_Dumpsite

그 간 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과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활동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였다. 다양한 생각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활동들을 진행했다.

그 중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심리치료에서 아이디어를 따내어 놀이치료 또한 시작했다.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모자이크(알파벳) 여러가지 활동을 해보았지만 아이들의 흥미를 잘 끌지 못하고 집중력도 짧았다. 대신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다. 활동의 진행방향을 많이 바꿔야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와중에 아픈 아이에게 약도 먹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다.



**02**

# 활동지\_ Pugaro



## 활동지\_Pugaro



덤프사이트보다 비교적 환경도 좋고 교육체계가 잡혀 있는 학교에서 활동하는 거라 원활할거라 생각했고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기도 생각보다 복잡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보호자와 동행했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쉬웠지만 보호자들의 활동 개입이 많아서 아이들의 흥미나 관심보다는 주어진 활동에 대한 보호자들의 활동에 가까워 보였다.



## 활동지\_Pugaro

모자이크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은 의미없이 우리가 혹은 보호자들이 시키는 데로 종이만 붙이는 것으로 보였고 심지어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대신해서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진행하는 활동들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헷갈렸다.

‘나 자신을 동물로 표현해서 그리기’란 활동을 했을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하며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롤리가 칠판에 동물들을 그려주자 동물을 따라 그리기 바빴다. 그래서 바로 모자이크 활동으로 변경했다. 그나마 알파벳 모자이크 활동이 알파벳을 조금 아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워 보였다.



## 활동지\_Pugaro



어떤 활동을 해야 아이들에게 흥미를 가지게 하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더욱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만 보호자들과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이 수업 받는 교실 옆에는 아떼들이 운영하는 수선집이 있다. Dencio는 라온아띠 긴 팔 유니폼을 맡겨서 반팔로 수선하였다. 그는 만족했다.

**03**

# End Poverty



# End Poverty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실행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9월에 진행된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빈곤 포르노가 재생되는 것을 보고 빈곤포르노를 주제로 결정하였다.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빈곤 포르노에 대한 설명과 생각 나누기, 빈곤에 대한 설명과 생각 나누기를 주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일시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였다. YMCA사람들을 주목표로 삼았으나 의외로 많은 스콜라들이 참석하였다.

발표 장소는 YMCA 건물 안에서 진행하였는데 장소가 협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 End Poverty



안양 YMCA에서 진행하였던 국내훈련 동영상으로 시작하였다. 간단한 자기소개, 팀 소개 및 주제소개를 마치고 빈곤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였으며 그 뒤 이 것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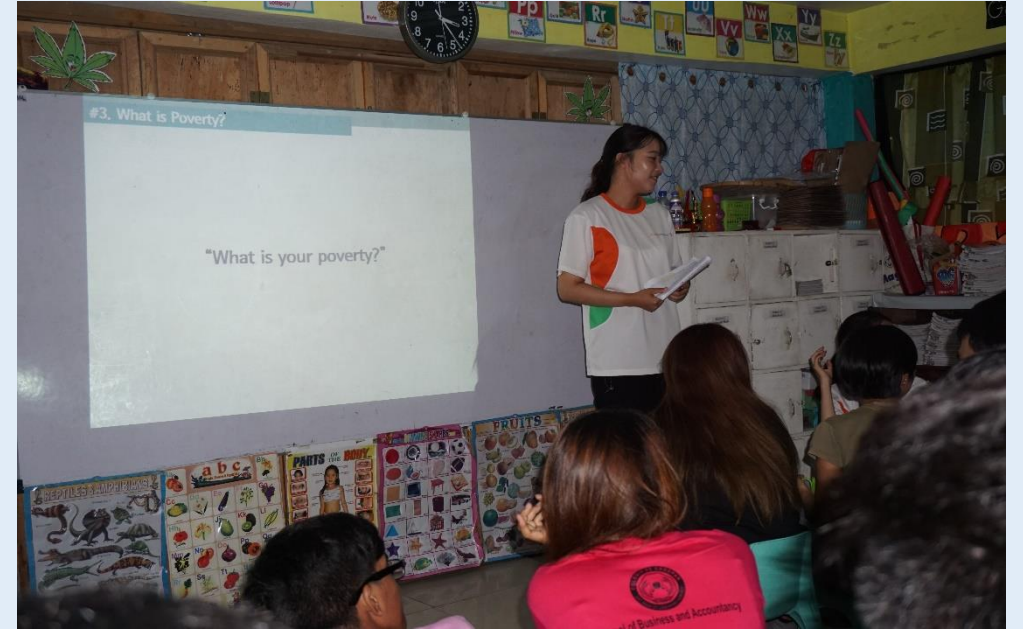


생각을 공유한 다음 빈곤 포르노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람들 중 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설명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빈곤포르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에는 진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

# E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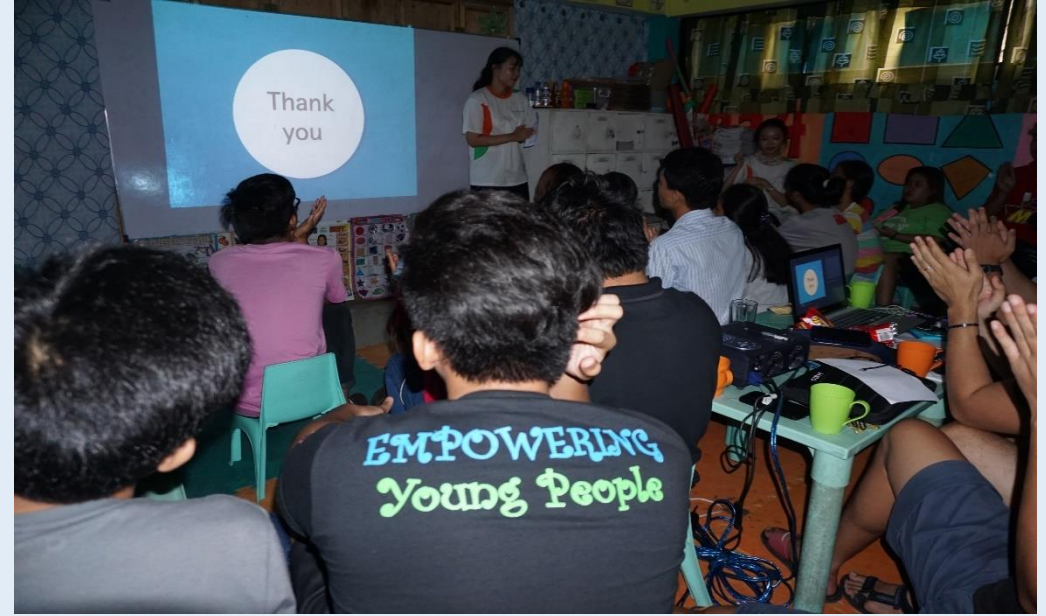


빈곤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때는 참여를 유도하여 호응이 좋았다. 빈곤을 어렵지 않고 실감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빈곤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에는 모두가 참여하였다. 서로의 빈곤을 공유하며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였다.

# End Poverty



마지막으로 간단한 활동을 통하여 빈곤을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된 후 지미총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빈곤이란 무엇인가' '어디가 가장 나아가기 위해 좋은 장소인가' 등을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빈곤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서 단언할 수 없는 개념이다.

**04**

**우리의 10월**





## 우리의 10월

10월 말을 기점으로 모든 팀원들이 순차적으로 Dengue fever에 걸렸다. 고열을 동반한 두통, 식욕저하 (Dencio 제외), 근육통, 가려움을 동반한 열꽃 등의 증상이 나타나 활동을 제대로 이어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일 증상이 약한 Dengue fever에 감염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우리의 몸상태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활동재개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10월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팀원 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같이 아파하면서 ‘함께가 아니었다면 이겨 낼 수 없었을 것’ 이라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05

# 피드백



## 피드백

하루는 ‘한강’ 이라는 한식만 파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곳 사모님은 한국분이다. 우린 자원활동을 위해 여기 살고있고 활동지는 푸가로와 덤프사이트라고 소개해드렸다. 그런데 사모님이 “아, 쓰레기장?” 이라고 반응 하시는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 그곳엔 덤프사이트에 와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들이 많다. 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우리조차 ‘덤프사이트’ 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전혀 이름을 말하거나 듣기에 불편하다고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래서 뭔가 이름만 들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힘이나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한다. 라온아띠 팀원들과 팡가시 난Y가 같이 시작한다면 덤프사이트도 더 이상 쓰레기장이 아닌 좀 더 나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6**

# 개인에세이



# 개인 에세이

## Amelia 이야기

'왜 하필 우리팀이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 모두가 아파야만 했는지. 모든 활동이 중단 될 수 밖에 없었다. 덤프사이트의 아이들과 푸가로의 아이들과는 잠깐의 이별이었다. 활동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나의 힘의 원천인 아이들을 못 본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다. 어릴 적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 할 수 있었는지, 어떤 순간으로 인해 또한 성장 할 수 있는지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생각해보면, 내가 필리핀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잠깐의 우리와 함께한 순간으로 인해 누군가는 즐거웠을 것이며, 닮고 싶을 것이며, 기억에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겪었던 10월의 아픔도 같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순간을 두고 두고 기억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우린 이 순간으로 인해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으며 삶의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마냥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워하지 않으니 이 순간은 더 돈독해졌다. 잘 견뎌준 10월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고맙단 말을 해주고 싶다.

# 개인 에세이

## Dencio 이야기

10월은 햇빛도 짹짹하고 바람도 조금씩 불어서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혼자서도 많이 걷고 팀원들과 함께 많이 걸었다. 걷고 또 걸으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려고 시동을 건 시기에 한 달을 넘게 모든 팀원들이 줄줄이 아팠다. 활동을 못한 것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팀원들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팠던 탓에 많이 힘들어 했다는 사실이다.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서 힘들게 하는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싫었다. 이 시간들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괜찮았다. 처음엔 '시간이 흘러가면 괜찮아진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 말이 맞았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팠던 탓에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어쩌면 활동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더 생각하면서 배려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팀이 아닌 개인으로 필리핀에 있었다면 극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팀이었기에 가능했고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사실은 우리 말고도 우리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멀리 있지도 않았다.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에게 아이들의 미소와 소중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온기가 있다. 작지만 크다. 익숙하지만 소중하다.

잠시 멈춰서 숨을 돌렸다. 뒤도 한번 돌아보았다.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재정비를 마쳤다. 더디게가도 바르게 가면 된다. 다시 전진!

# 개인 에세이

## Rosita 이야기

10월은 나에게 강제휴식이라는 것을 주었다. 필리핀에 병을 수집하러 왔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 많이 아팠었다. 10월 초에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조차 기억 안 날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 벌써 아픈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난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했다. 에세이를 쓰기 전에 과연 난 10월 초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일기장을 보았다. 물론 일기장에 쓴 내용도 나누고 싶지만 내 머릿속에 10월은 그냥 강제휴식 뿐이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응급실에 가본 적도 이렇게 아파본 적도 없었다. 처음 풍토병이라는 것을 걸렸을 때 썼던 일기장을 보니 다시 또 아프면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해야겠다는 글을 보았다. 그러나 그 후에 또 아팠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해졌는지 돌아갈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단지 또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보낸 걸 후회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나의 행복 때문에 누군가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다. 그래도 너무 고마웠다. 그 걱정하는 마음이 하루라도 빨리 괜찮아 지기 위해 날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한 달 강제휴식을 하니 한 달 전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웠다. 다시 마주하고 싶었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주 밖에 남지 않았다. 3주라는 숫자가 그렇게 짧아 보일 수 없었다. 3주 뒤에는 아쉬움이 가득할 것 같다. 이 마음이 떠오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 종종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그냥 경험으로 넘기고 싶다. 언제 또 이런 경험해보겠나. 좋게 생각하고 싶다. 10월은 충분히 아팠다고 생각한다. 11월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아프지 말고 힘내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후회하지 않게 웃으면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

# 개인 에세이

## Lucas 이야기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갔다. 매 순간이 정신없고 소란스러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은 많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은 하나가 없다. 매사 신중하려고 애쓰지만 매순간 조급하다. 손에 쥘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잡았지만 하나도 후련하지 않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들은 손대기조차 쉽지 않았다. 여러 가지 풍파 덕인지 아팠다. 끝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었지만 많이 잃어버렸고 매순간 아쉽다. 욕심만 많고 미비한 내 스스로 항상 아쉽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무의미했다. 내 주체성에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순간 선택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강요 받아 내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많이 불안했다. 좋게 말하면 시야가 넓어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가치관에 혼란이 왔다. 좇대가 없다. 정리하기위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월간 RABA 10월호



# Salamat po! 11월호에서 만나요!



Edit by . **Amelia** | **Dencio** | **Rosita** | **Lucas**

Copyright © RaBa. All rights reserved